

	<h1>보도자료</h1>	2021. 12. 12. (일)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대전환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		

- 이재명의 ‘합니다. 소확행’ 공약 시리즈 24 -

“아이들의 제대로 된 한 끼를 책임지겠습니다”

아동급식 개선 공약 발표

- 코로나19로 학교 등교일 줄어 ‘굶을 걱정’ 하는 취약계층 아이들 증가
- 사용처 일반음식점·편의점 등 제한, 지자체별 급식 단가 차이... 68%는 6천원 미만 지급, 카드 별도 제작으로 저소득층 낙인효과도
- 아동급식카드 사용처 확대, 일반체크카드와 동일한 디자인 및 IC카드 결제방식 도입, 아동급식 지원 단가 인상 및 국가 지원 등 개선 방향 제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24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아동급식 개선 공약’을 발표했다. 취약계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현행 아동급식 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해 아이들의 ‘제대로 된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당연한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후보는 “코로나19로 학교 등교일이 줄면서 학교 못 가면 굶을 걱정을 하는 취약계층 아이들이 늘고 있다”며, 팬데믹 시기 취약계층이 겪는 고충을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는 실제 취약계층 아이들에게 ‘학교 못 가는 날’은 곧 ‘굶는 날’이 된다고 지적했다. 아동급식 지원사업을 통해 제공되는 급식카드는 지자체마다 사용처가 조금씩 다른데 일부 지자체의 경우 일반음식점·편의점 등에서만 사용이 가능함에 따라, 아동들이 편의점 삼각김밥과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지자체마다 급식 단가가 다를 뿐 아니라, 전국 지자체의 68%는 권장단가인 6천원 미만을 지급하고 있다. 아동급식카드 디자인도 별도 제작되어 카드를 사용하려고 하면 누구나 쉽게 급식카드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 이른바 ‘저소득층에 대한 낙인효과’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 후보는 경기도에서 “‘모든 음식점에서 당당하게 식사하고 결제’할 수 있도록 아동급식카드

시스템을 전면 개선한 바 있다”며, “앞으로 모든 아이들이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 후보는 구체적 개선책을 제시했다. 가장 먼저 현행 아동급식카드의 사용처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일반식당뿐만 아니라 대형마트 푸드코트나 반찬가게, 정육점 등으로 사용처를 늘려 급식카드 사용 아이들이 다양한 건강한 먹거리를 접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급식카드 디자인을 일반체크카드와 통일하고 IC카드 결제방식을 도입하겠다고도 공약했다. 카드 사용 시 일반체크카드와 구분하지 못하도록 해 낙인효과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아동급식 지원 단가 인상도 약속했다. 최저기준 이상의 단가를 책정하도록 해 사는 지역에 따른 식사의 질 차이가 없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국가가 비용을 지원해 지자체가 인상 부담을 오롯이 떠안지 않도록 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이 후보는 “먹는 것만큼은 차별해선 안 된다. 특히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는 더욱”이라고 강조하며, “‘제대로 된 한 끼’ 먹는 당연한 권리를 반드시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선대위가 제시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아동급식 지원 대상자인 취약계층 아동’은 2019년 49만 6,877명에서 지난해 51만 6,639명으로 1만 9,762명이 증가했으나, ‘아동급식을 지원 받은 아이들’은 같은 시기 33만 14명에서 30만 8,440명으로 2만 1,574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취약계층 대비 아동급식 지원 비율’도 2019년 66.4%에서 2020년 59.7%로 6.7%p 감소했다.

1990년대 후반 학교 운동장에서 수돗물로 배 채우던 아이들의 배고픔을 보듬기 위해 시작한 ‘아동급식 지원사업’이지만, 2005년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된 이후 지자체별 아동급식 지원 금액이나 지원율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보건복지부의 ‘결식아동급식 업무 표준 안내서’에 따른 급식 단가인 6천원 미만인 기초 지자체가 154곳으로, 전체의 약 68%에 달한다. 72개 지자체는 급식카드 제도조차 운영하지 않고, 단체급식이나 도시락 배달만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끝)

□ 설명자료

[참조 1. 아동급식 지원사업 개요]

□ 목적

-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 지원 등을 통해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

□ 법적 근거

- 「아동복지법」 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제2항 제3호 및 제4항에 따라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 지원

□ 연혁

- 2000년 : 아동급식(석식) 사업실시
- 2001년 : 조식 지원
- 2004년 : 방학, 토·공휴일 중 취학아동 중식 지원이 교육부에서 이관, 겨울방학 중식지원 대상 확대
- 2005년 : 아동급식 지원사업 지방이양
- 2009~2010년 : 경제위기로 인한 결식아동 증가에 따라 한시적 국비 지원
- 2018년 : 급식단가 조정(3,500원 → 4,000원)
- 2019년 : 아동급식 온라인(복지로) 신청 개시(2019.1.30.)
- 2020년 : 급식단가 조정(4,000원 → 5,000원 이상),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읍·면사무소)에서 아동급식 신청 가능(3.11.~)
- 2021년 : 급식단가 조정(5,000원 → 6,000원 이상)

□ 지원대상 :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

- ▲결식우려*가 있는 수급자·차상위·한부모 등의 아동, ▲결식이 발견 또는 우려되는 아동**,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근로, 질병·장애 등의 사유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부식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 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등 추천에 따라 아동급식위원회에서 지원 결정

〈연도별 아동급식 지원대상 아동〉

(단위 : 명)

연도	계	기초	차상위	기타*
*15년	426,594	145,400(34.1%)	112,591(26.4%)	168,603(39.5%)
*16년	385,597	193,245(50.1%)	38,078(9.9%)	154,274(40.0%)
*17년	364,079	176,564(48.5%)	32,503(8.9%)	155,012(42.6%)
*18년	357,127	171,494(48.0%)	30,608(8.6%)	155,025(43.4%)
*19년	330,014	162,754(49.3%)	27,080(8.2%)	140,180(42.5%)
*20년	308,440	166,198(53.9%)	20,676(6.7%)	121,566(39.4%)

※ 출처 :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

* 한부모, 긴급복지, 중위소득 52%이하, 지역아동센터·복지관 이용

□ 지원 내용

- 지방자치단체 : 조식, 석식, 토·공휴일 및 방학 중 중식 지원
- 교육청 : 학기 중 중식(학교급식)
- 1식 6,000원 이상 지원 권장

□ 지자체별 급식 지원단가 및 재원 분담비율 (권익위 실태조사(2021.7. 기준) 재구성)

시도	급식 지원단가 (원/1식)	급식 지원방법	광역:기초 지자체 예산분담비율(%)	참고 (최고-최저)
서울	7,000~9,000	급식카드, 단체급식, 도시락, 부식	50:50 (종로구·서초구 33:67) (강남구 37:63)	서초구 9,000원 강남구 8,000원 기타 6,000원
부산	5,500~8,000	급식카드, 단체급식, 도시락	75:25	수영구 8,000원 서구, 동구 등 5,500원
대구	5,000	급식카드, 단체급식, 도시락, 부식	(방학중 중식) 50:50 (연중 조·석식) 75:25	
인천	5,500~6,000	급식카드, 단체급식, 도시락	50:50 (서구·용진군 40:60)	계양구, 서구 등 6,000원 중구, 동구 등 5,500원
광주	6,000	급식카드, 단체급식, 도시락	75:25	
대전	6,000	급식카드, 단체급식, 쿠폰(지역아동센터 휴원 시)	80:20	
울산	5,500	급식카드, 단체급식, 도시락	75:25 (울주군 40:60)	
세종	5,000	급식카드, 단체급식	100	
경기	7,000	급식카드, 단체급식, 도시락, 부식	30:70	
강원	5,000~6,000	급식카드, 단체급식, 도시락, 부식, 식품권	(방학중 중식) 20:80 (연중 조·석식) 0:100	
충북	5,000~6,000	급식카드, 단체급식, 도시락, 지역상품권	0:100	제천시 6,000원 단양군 4,000원
충남	5,000~8,000	급식카드, 단체급식, 도시락, 식품권	25:75	서산시 8,000원 천안시, 아산시 등 5,000원
전북	6,000	급식카드, 단체급식, 도시락, 부식	25:75	
전남	5,000	단체급식, 도시락, 부식, 식품권	(연중·방학중) 30:70 (지역아동센터) 20:80	
경북	5,000	급식카드, 단체급식, 도시락, 부식, 식품권	20:80	
경남	6,000~7,000	급식카드, 단체급식, 상품권	10:90	
제주	5,000	도시락, 부식	100	

[참조 2. 경기도 공약 이행]

; 아동급식카드(G드림카드)시스템 전면개선... 모든 음식점에서 당당하게 식사하고 결제

□ 현황

- ① (現) 제휴가맹점에서만 사용가능 ⇒ 편의점 편중, 아동의 식사장소 부족
 - G드림카드(급식) 시스템 : 2010년 구축(구축·운영 : 도 ↔ 농협 ↔ 대행사)
 - 경기도 제휴가맹점 수 : 총 11,500개소(편의점 약 8,900개소, 일반음식점 2,600개소)
 - (改善) B/C카드사의 가맹점(일반음식점)을 G드림카드시스템에 자동연계
⇒ 모든 일반음식점(편의점) 사용가능, 시군의 행정력 대폭 절감(전국 최초)
- ② (現) 마그네틱 카드, 별도 디자인 ⇒ IC카드 전용단말기 사용 제한, 낙인감 발생
 - 일부단말기 IC카드만 결제가능, G드림카드 별도디자인은 아동의 낙인감 발생
 - (改善) IC카드로 전면 교체·일반체크카드와 동일디자인 적용 ⇒ 아동의 낙인감 해소
- ③ (現) PC에서만 가맹점 및 잔액조회 가능 ⇒ 아동들의 사용 기피, 콜센터 수시 문의
 - (改善) 모바일 앱개발 ⇒ PC와 모바일에서 실시간 조회가능, 콜센터 업무 경감

<분야>	<현 행>	<개 선>
사 용 처	11,500개소 (일반음식점 2,600 + 편의점 8,900)	124,000개소 (일반한식 108,939 + 중국음식 6,161 + 편의점 8,900)
사용처 확보	시군에서 개별 확보(계약체결)	BC카드사 가맹점 자동 확보
사용처 조회	PC	모바일, PC
카드형태	마그네틱 카드, 바우처카드	IC카드, 체크카드
카드디자인	혼 용 (G드림카드형 + 일반형)	일반형 디자인
편의점 사용	아동급식 메뉴 선택후 결제	일반카드와 동일
콜센터	콜센터 운영	콜센터 운영
도 예산부담	없음	없음

※ 시스템 개선 소요예산 : 농협부담(약 2억원), 사회공헌사업으로 추진

□ 공약

- 2020년 8월 31일부터 경기도 내 모든 일반음식점에서 아동급식카드 사용 가능
 - 비씨(BC)카드사의 가맹점을 시스템에 자동연계(가맹점 1만1,500개소→12만4,000개소)
 - IC카드로 전면교체, 일반체크카드와 동일디자인 적용, 모바일 앱개발
- 급식아동의 영양불균형 및 낙인감 해소, 시군의 행정력 절감에 기여

〈경기도 아동급식카드(G드림카드)〉



※ 출처 : 경기도 자료 재가공

[참조 3. 권익위원회 권고사항]

□ 현황 및 문제제기

- 아동급식단가 최저기준에 대한 법령상 근거 부재
 - 아동복지법(제35조)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급식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아동급식 지원사업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2005)된 후 상대적으로 국가 역할 미흡
 - 복지부는 표준 매뉴얼을 통해 1식당 지원 단가를 권장하고 있으나, 매뉴얼은 참고사항에 그쳐 지자체별 이행여부 점검·감독 한계
 - ※ 표준매뉴얼의 권장 단가 : ('19년) 4천원 → ('20년) 5천원 → ('21년) 6천원
- 지자체별 아동급식의 과도한 편차 발생
 - 아동급식 지원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모두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지자체별 지원단가 및 지원방법 등의 편차가 큼.
 - 연중 조식식, 방학 중 중식의 경우 광역 지자체와 기초 지자체의 예산분담비율 절차로 인해 효율적 급식 지원이 어려운 지역이 존재함.
 - 지역별 물가 차이 등을 고려하더라도, 지원 단가가 아동의 일반적 한 끼 식사를 위한 최저기준에 못 미치는 지역도 존재
 - ※ '21.3기준 급식 단가가 6천원 이상인 지자체는 74곳(32.5%), 6천원 미만인 지자체 154곳(67.5%)
 - 지자체의 자율적 책임 운영을 기대하거나, 지자체별 재정능력 및 관심 부족 등으로 아동의 급식 선택권 차별 결과 발생
 - ※ 전남, 제주 전체를 포함한 전국 72개 시군구는 급식카드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지역아동센터 단체급식 또는 도시락, 부식 배달 등의 방식만 운영
- 아동의 급식카드 이용 불편
 - 지자체에 따라 가맹점이 부족하거나 상당수가 편의점이며 양질의 식사가 가능한

일반음식점, 푸드코트 등 부족

- 아동의 급식 외 사용, 부정사용 등을 제한할 목적으로 급식카드 사용처(가맹점)을 일반음식점, 편의점 등 완제품 판매점으로 제한함으로, 인근에 적합한 가맹점이 없을 경우 이용에 어려움
- 급식카드 가맹 음식점 등의 위치, 메뉴, 잔액 등의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없어 이용에 불편함이 초래해 급식을 하지 않아 연간 소멸된 예산이 10억원 이상
- 일반 체크카드나 교통카드 등과 차별화된 카드 디자인 기능으로 인해 아동의 낙인감 발생
 - ※ '21.6 국민생각함 설문조사 결과 '급식카드 사용처 확대 33.8%, 아동급식카드 디자인 개선 26.8% 시급한 과제로 답변
- 마그네틱(MS) 카드의 경우 배달음식 주문 시 굵는 결제방식으로 이용이 불가능하여 아동이 원하는 식사 선택을 할 수 없는 사례 발생

□ 실천방안

- 지급 단가 기준에 대한 법령상 근거 마련 : 아동복지법 제35조 개정
 - 국가가 전국적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 감독할 필요(예:아이돌봄서비스 지원단가 결정 기준)
- 지자체의 재원 분담 비율 조정 : 아동급식 지원 조례 또는 업무 계획에 반영
 - 예산 분담 비율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여 시군구의 부담을 경감하고, 광역시도에서 일정비율 분담하도록 조정
- 지자체의 아동급식 단가 개선 : 지자체 조례, 시도교육비특별회계 편성에 반영
 - 지역의 물가 수준을 반영한 최저기준 이상의 단가 책정
- 아동급식카드 사용처 확대 : 아동급식지원 조례, 업무 계획 반영
 - 일반식당, 대형마트 푸드코트, 반찬가게, 정육점 부식 구입도 허용하도록 개선
- 가맹점 정보 공공데이터 공개 및 위치서비스 제공 : 업무 계획 반영
- 아동급식카드 디자인 및 결제방식 개선 : 아동급식지원 조례, 업무 계획 반영
 - 일반 체크카드 또는 교통카드 같은 디자인 도입, IC카드 결제방식 도입
- 아동급식 지원 현황 점검 및 실태조사 근거 마련 : 아동복지법 제35조 개정
- 지자체 대상 최저기준 준수, 운영방식 실태조사 점검
 - 이용자 대상 만족도, 결식여부 등 설문조사
- 아동급식제도 운영결과 지자체 합동 평가에 반영 : 합동평가 지표 반영

□ Q&A

아동급식 지원사업 개선 Q&A

Q1. 아동급식 지원사업이란?

☞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 등을 통해 결식 예방 및 영양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입니다.

Q2. 아동급식 지원사업 대상은?

☞ 지원대상은 18세 미만의 아동 중 결식 우려가 있는* 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정 등의 아동, 결식이 발견 또는 우려되는 아동, 아동복지 프로그램 이용 아동(지역아동센터, 복지관) 등으로, '20년 기준 아동급식 지원 대상자는 308천 명입니다.

*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근로, 질병·장애 등의 사유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부식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 급식대상자 현황 >

(단위: 명)

연도	계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18년	357,127	171,494(48.0%)	30,608(8.6%)	155,025(43.4%)
'19년	330,014	162,754(49.3%)	27,080(8.2%)	140,180(42.5%)
'20년	308,440	166,198(53.9%)	20,676(6.7%)	121,566(39.4%)

* 출처 : 보건복지부('21.3월)

Q3. 아동급식 지원사업 시행(재원 부담) 주체는?

학기 중				방학 중, 연중
평일		토·공휴일		
조·석식	중식	조·석식	중식*	조·중·석식
지자체	교육청	지자체	교육청	지자체

* 학기 중 주말·공휴일 중식은 지자체가 교육청 예산을 지원받아 제공

Q4. 아동급식 지원사업 시행 현황은?

< 2021년 지자체별 아동급식 지원 현황 >

시도	급식 아동수(명)	급식지원 총예산(억원)	급식카드 시행 시군구/전체 시군구(개)	급식카드 예산(억원)	급식카드 가맹점(개)	급식카드 결제방식
서울	31,669	552	25 / 25	391	99,357	IC
부산	15,945	148	16 / 16	88	3,800	MS
대구	18,007	134	8 / 8	67	2,368	MS
인천	13,515	181	10 / 10	98	3,515	MS
광주	15,620	151	5 / 5	72	1,458	MS
대전	8,480	134	5 / 5	59	1,510	MS
울산	6,056	64	5 / 5	44	1,637	MS
세종	1,172	12	1 / 1	8	399	MS
경기	51,308	882	27 / 31	358	200,319	IC
강원	9,411	124	8 / 18	54	2,092	MS
충북	11,333	194	6 / 11	102	2,015	MS
충남	13,700	225	12 / 15	107	1,824	MS
전북	18,045	213	4 / 14	58	1,296	MS
전남	27,737	190	0 / 22	0	급식카드 제도 없음	-
경북	15,479	312	11 / 23	128	1,583	MS
경남	25,247	328	14 / 18	193.5	4,308	MS
제주	6,370	6	0 / 2	0	급식카드 제도 없음	-

※ 급식 아동수, 급식지원 총 예산은 급식카드·단체급식·도시락 등 모든 급식유형을 포함

* 출처 : 권익위 실태조사('21.3월 기준)